新年隨想

보살 정신 되새기자

동명 스님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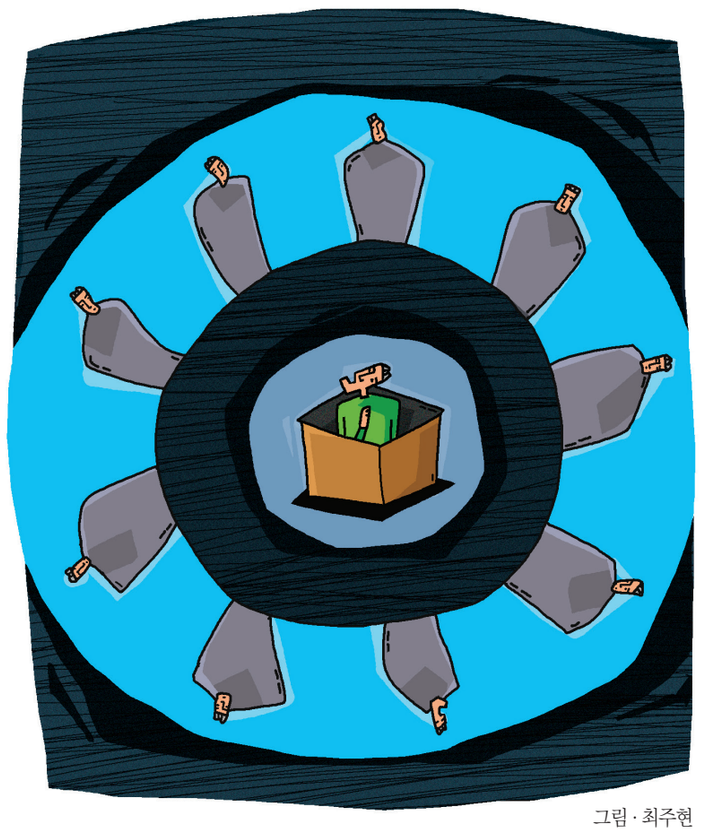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코로나 유행 장기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가르침 전해
현재 사회에 필요한 건 〈금강경〉의 '보살 정신'
댓가 바라지않고 보살행 실천하는 한해 보내자

지난 2년 동안 인류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전세계가 공히 어떤 한 질병에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을 받은 시대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년에 걸친 위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구촌의 위기가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2월 봉암사에서 안거를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모든 통신을 끊고 지냈던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았다. 공주 학림사에서 예정돼 있었던 담선법회(談禪法會)가 취소된 것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법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템플스테이도 진행하지 못했으며, 제등행렬은 물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염병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인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한 전염병이 이렇게 전(全)지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었다. 실제로 2020년 봄만 해도 더위가 시작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기세에 언제부턴가 전문가들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하지 않는 형편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물리학자 박권 교수의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사건이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왜 '일어날 일'이 되었을까?

첫째,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함에도 인간은 마치 인간과 다른 생명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마치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용하였다. 나나 내가 속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으면 타인이나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 먼저 이용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경쟁적으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을 난도질했다. 그 난도질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

둘째,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존해왔다. 그런데 지구의 주인은 오직 인간이라는 생각이 다른 생명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간은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님을 자각해가고 있다.

셋째, 혼자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오면서 인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축적할 수 있는 부와 권력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와 권력의 규모도 커졌다. 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입장을 같이하는 집단만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의식도 팽배해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것이 바로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접촉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자신이 속한 집단만 잘 살아보겠다는 기획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금강경〉의 보살정신이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 부처님은 "보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신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준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남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제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둘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섯 가지 바라밀행, 열 가지 바라밀행이 모두 유용하며,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行願)도 유용하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우리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에게 예의를 지키고, 남을 칭찬해주며, 자신이 가진 것을 꼭 필요로 하는 이에게 보시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인정하고 참회하며, 남이 잘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누구나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모든 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셋째, 보살행을 실천하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상(相/想)에 머무르지 않는 보살행'이다. 어떤 행위의 대가는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오지 않는다. 특히 보살행의 규모가 큰 것일수록 그 효과 또한 느리게 다가온다. 대가를 바라다보면, 대가가 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게 되면서 보살행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보살행 실천의 이익만 얻게 되는 셈이다.

넷째,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잘살기 위해 애쓰다보면 다른 생명체를 해치게 되고, 그러다보면 일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이익되는 것 같지만, 생태계의 불균형이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살정신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보살정신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위하는 정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의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나'나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나의 것만을 주장할 때는 남들도 불행해지고 그 영향이 자신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불교는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가르치는 '진실한 이기주의 종교'라고 말한다. 새해에는 〈금강경〉의 보살정신으로 나와 남,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社說

새로운 리더가 이끄는 변화

올해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20대 대통령과 전국 각 지자체 장들이 새롭게 선출된다. 불교계도 들썩인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 최고어른인 종정이 10년만에 바뀌고 9월에는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중앙종회 의원도 새롭게 선출된다.

리더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곧 그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표에 담아권리를 행사하고 그 변화의 한 축이 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는 우리나라를 이끌 리더의 자격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임인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불교계 결집에 방점이 찍힌 만큼 보다 면밀한 잣대가 필요하다.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더해 전통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나 인식, 전통문화 관련 정책의 건전성, 그리고 종교감수성을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과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의를 갖춘 선거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각종과 총지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변화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원력을 보태자. 사회노동위원회 10주년, 불교스카우트연맹 20주년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단체와 조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아낌없이 보내자. 긍정적인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느새 불교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자리매김해 있을 것이다.

임인년, 종교편향 근절의 해로

새해벽두부터 불자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들이 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여러 종교편향 · 차별 사안들을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8월 27일 이명박 정권의 도넘은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봉행되기까지의 역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불교계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종교편향 ·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공공영역에서의 차별 발언과 차별적인 정책은 물론, 도넘은 훼불사건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언제까지 불교만 인내하고 감내하고 포용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다. 공직자차별신고센터가 가동되고 법이 개정됐지만, 큰 변화는 없다. 아니 변화는 있었지만 법망을 피해 더욱더 교묘해지고 세밀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언행과 정책들에 대해 사후약방문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특히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종교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한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해 예정된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전환점이 돼야 한다. 단순한 불교계의 결집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이를 의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변화의 법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 산 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 회 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명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